



독 일 편(下)

나. 학술교류 증진

재독과협에서는 회원들의 학문 및 과학 기술적 성과를 널리 알리고, 각 전문분야의 새로운 동향에 관한 정보 교환과 연구 방향의 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정기학술대회, 전문분과별 학술심포지엄, 지역행사시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있다. 특히 전문분과별 학술심포지엄에서는 유사 전문분야 회원들 간에 독일내 최신 학술 및 기술정보의 한국 실정을 감안한 현실적 의미에 대한 토의가 심도있게 진행되고 있다.

재독과협은 유럽주재(재영, 재불) 한국 과학기술자 협회들과 함께 재구과과학국 과학기술자연합회(재구과연)를 형성하여 긴밀한 연계하에 이미 18년전부터 과학기술교류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거의 매년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유럽내의 한국기술자들에 학술교류를 꾀하며, 이번 재독과협의 창립 20주년 기념행사에서도 재독과협 주축로 재영 및 재불 과학기술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과학기술정보를 교환하게 된다.

또한 재독과협에서는 모국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워크숍, 특히 모국방문 학술대회, 세계한민족과학기술자종합학술대회 등의 참가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다. 출판사업

成年과협 位相 재정립

在獨 한국과학기술자협회

회장 황영수씨, 20돌기념 자축행사

재독과협에서는 회원들 상호간의 원활한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연 2회씩 「과협소식」을 발간하고 있다. 「과협소식」은 1993년 6월 현재 제38호를 발간하기에 이르렀고 호당 1천매가 발행되어 재독과협 전회원, 고국 및 독일주재 관계기관 및 산업체, 기타 재외과학기술자협회에 발송된다. 아울러 필요에 따라 소식지를 발행하며, 수시로 재독과협논문집을 발간하고 있다.

라. 국내 취업알선 및 기술정보 지원

이는 재독과협의 주요사업 중 모국의 과학기술발전에 가장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활동으로 간주될 수 있다. 재독과협에서는 모국의 각 연구소, 대학,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에 대한 정보를 해당기관의 요청에 따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수시로 국내기업체와 본 협회간의 연대를 통해 기업설명회를 개최하여 독일 현지에서 관련분야 전문인력과 국내기업체간의 직접적인 접촉이 용이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모국의 기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전문기술에 대한 자문, 정보의 체계적 조사 등에 대한 요구에 응하고 있다. 독일주재 한국국가기관 과학기술관련자 그리고 독일주재 및 유럽주재 한국회사 대표들이 정기적으로 재독과협 총회, 평의회, 학술강연회 등에 직접 참석하여 과

학기술정보 교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과학기술발전의 제반사항에 관한 토의를 갖는다.

4. 회원현황 및 분포

진술한 바와 같이 2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재독과협은 재외과학기술자협회 중 재미과협에 이어 두번째로 1973년 창립되어 현재 7백여명의 회원을 거느리는 성년의 단체로 성장하게 되었다. 재독과협은 정회원, 단체회원, 그리고 명예회원으로 그 회원구성을 구분하고 있으며, 독일에 거주하는 한국인으로서 과학기술분야에 대학과정 이상의 학력소지자 및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독일의 기술전문학교 출신 포함)를 정회원의 자격으로 규정하고 있다. 단체회원으로서 독일에 주재하고 있는 기관 및 상사들이 가입하여 본 협회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일반회원의 구성은 창립초기부터 재독과협과 함께 하여 온 「원로 또는 장년회원」 독일대학, 연구소 및 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젊은 과학기술자 그리고 석사 및 박사과정중에 있는 「유학생회원」으로 대별될 수 있다.

독일은 학업을 마친 외국인이 취업하여 계속 거주하기가 매우 어려운 나라이다. 더욱이 8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변화하기 시작한 독일의 외국인 노동력 유입 억

제정책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사실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그 수에 있어서 회원구성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유학생회원들은 학업을 마치면 귀국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통 한국에서 학부를 졸업하고 독일에 유학을 하는 사람들이 박사학위를 취득하기까지 약 10년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독일의 대학과정은 학부와 석사과정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이공계의 경우 석사학위(Diplom)를 취득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한국에서 학부를 졸업하고 유학오는 경우 어학시험에 합격한 후 학력인정시험을 거쳐 해당학기에 배정되어 학업을 시작하게 된다. 이같은 Diplom과정은 예비과정(Vordiplom)과 본과정(Hauptdiplom)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전과정 이수에 최소 6년이 소요된다. 학년의 개념이 없는 독일의 대학과정은 선수·후수과목의 구분이 분명한 필수강좌의 학점 획득이 그 근본 졸업요건으로 되어 있다. Diplom을 획득한 후 대학이나 정부출연연구소에 소속되어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박사학위과정을 밟게 되는데 학위취득까지 약 5년이 소요된다. 종종 한국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직접 박사학위과정으로 유학오는 경우, 약 2년간의 추가교육과정(Aufbaustudium)을 거쳐 실제의 박사과정에 들어가게 된다. 한편 독일에서의 박사과정은 강의에 참석하거나 시험을 치르는 것보다는 실제적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각 기술분야의 실체화된 연구·기술능력을 습득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의 장점으로 꼽을 수 있다.

재독과학의 원로 및 장년회원, 그리고 젊은 과학기술자들은 독일의 대학, 정부출연연구소(예를 들면 Max-Planck-Institut), 대단위국책연구단지(Groß forschungseinrichtung) 및 산업체(Daimler-Benz, AEG, Siemens, Bosch 등)에서 중요한

과학기술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본 협회 회원의 전공별 개괄적인 분포는 아래표와 같다.

주요전공별 회원구성(1992년 2월말 현재)

전공분야	회원수
건축,도시,토목,환경공학	120명
기계공학	130명
재료공학	80명
전기,전자공학	65명
컴퓨터공학	65명
생명과학	95명
물리,수학,화학	95명
기타	50명
총계	700명

5. 맺는말: 재독과학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재독과학의 창립이래 가장 뜻깊은 해가 바로 올해 1993년일 것이다.올해로 재독과학은 스무 돌을 맞이한다. 재독과학의 전 회원은 성년의 해를 맞이하여 보다 활기차고 진취적이며, 한편으로는 어른스러운 협회활동을 통하여 모국의 과학기술 및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기 위해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있다. 아울러 재독과학에서는 1993년 10월1일에서 5일까지 독일 만하임(Mannheim)에 소재하고 있는 국방기술사관학교(Bundesakademie für wehrverwaltung und wehrtechnik)에서 「재독과학 창립 20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 행사는 일반학술강연, 전문학술강연, 초청전문강연, 경축행사 및 기타 독일 과학기술 관련단체의 방문 등과 같은 특별행사로 진행되었다. 이때 모국에서 과학기술계와 산업계의 인사들이 참석했으며 또한 독일을 포함한 전 유럽의 한인 과학기술자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동 행사는 또한 현지의 우리나라에 관심이 많은 독일 과학기술단체

및 기업체들의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다.

한편 독일의 통일이후 국가과학기술시스템의 변화과정에 주목하여온 재독과학의 창립 20주년 준비위원회에서는 그동안 바쁜 과학기술활동 중에서도 모국의 통일을 염원하면서 느껴온 스스로의 역할을 취합하는 의미에서 20주년 기념행사의 기조(Motto)를 「통일을 대비하는 과학기술」로 결정하였다. 한 민족의 역사상 가장 급속한 발전과 변화를 경험한 재독과학기술자들은 이제 20년을 성장해온 재독과학의 위상을 재정립해 보고자 한다. 선진국의 문턱에 이르러 통일을 내다보는 현시점에서 관찰자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의 조국을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기여할 수 있겠는가?」하는 자성의 기회를 갖고자 한다.

향후 재독과학의 주요활동은 「2000년대를 향한 과학기술선진국 도약」이라는 국가적 목표에 부응하여, 현재 독일의 학계 및 산업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과학기술자들의 역량을 총합하여 이의 효율적 활용을 현실화하는 데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한 당면과제로서 각 회원의 세부 전공분야에 대한 현실적 분류와 이의 전산처리가 시급하다고 본다. 현재 본 협회 자체노력에 의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의 실제적 운용을 위한 연구가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일정한 회관도 없이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운영되는 본 협회로서는 기술적, 재정적 외부지원이 필요하다.

끝으로 재독과학의 창립 20주년 기념행사는 재독과학 회원들만의 정보교환, 공동토론의 장을 넘어서 전 유럽의 한인과학기술자간의 친목 및 교류증진을 도모하는 자리가 될 것이며 아울러 모국의 과학기술단체 및 산업체와의 유대강화에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끝〉